

일러스트를 활용한 일본어교육*

-복합동사를 중심으로-

이경수**
kslee@knou.ac.kr

<目次>

- | | |
|----------------|------------------|
| 1. 들어가기 | 4. 복합동사의 문법상의 오용 |
| 2. 일본어교육과 복합동사 | 5. 마무리 |
| 3. 일본어교육과 일러스트 | |

主題語: 일러스트(illustration), 복합동사(compound verb), 일본어교육(Japanese Language Education), 오용(error), 문법적 특성(grammatical characteristics)

1. 들어가기

동사와 동사의 결합 표현은 영어 등 구미의 언어에서는 쉽게 볼 수 없으나 한국, 일본, 중국 같은 아시아언어권에서는 자주 접할 수 있다.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지만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는 동사끼리의 결합이 가능하므로 언어 유형론 연구뿐만 아니라 언어의 보편성 및 개별성 연구에도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동사와 동사의 결합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각 나라의 언어적 특징이 다르므로 외국어 학습자들로서는 역시 이해하기 어려운 항목¹⁾ 중의 하나이다.

최근 여성작가 8명이 쓴 단편소설집(文藝春秋의 『Invitation』)에는 6개의 복합동사가 들어 있는 짤막한 문장이 눈에 띄는데 개중에는 쉽게 의미를 유추할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있다.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Grant 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 (NRF-2011-327-1-A00517)"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일본학과 교수

1) 何志明(2010;7-8)은 일본어 모어화자에게는 복합동사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외국인 학습자에게는 매우 어려운 항목이므로 복합동사의 지도법을 개발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초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1) 何か言おうものなら、殴られたり、蹴られたりします。それまでの私たちは、何とか生き残るために、互いに出し抜こうとしていたのですが、こうなりますと、寄り合うようになります。私たちは、年長の者が幼い者を庇い、声を掛け合って離れないで生きていこうと誓い合ったのです。総勢、四十五名の子供たちが、狭い船倉にひしめき合っていました。

(Invitation)

(1)의 ‘살아남다’에 해당하는 「生き残る」는 한국어와 일본어가 1대1로 대응된다. 그러나 ‘내어빼다’가 아니라 ‘먼저 빠져나가다’라는 의미의 「出し抜く」는 전향동사와 후향동사가 모두 외부로의 이동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후향동사「合う」와 결합된 나머지의 복합동사는 전향동사의 의미만 알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2) 誰も思いきって話を切り出す者が無かった。

(2)의 「思いきって」는 「思う」와 「切る」, 「切り出す」는 「切る」와 「出す」의 결합으로 이루어 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思いきって」를 복합동사「思いきる」의 변형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과감하게’라는 의미의 굳어진 부사로 볼 것인지도 문제이다. 이는 관용적인 부사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할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思いきる」는 ‘단념하다’, 「思いきり(思いっきり)」는 ‘마음껏’, 「思いきって」는 ‘과감하게’라는 각각 다른 의미로 사전에 등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思いきった」는 연체사적으로 쓰이며 ‘대담한’이라는 의미이다. 이처럼 복합동사는 형태에 따라 의미도 달라지므로 결코 쉬운 학습항목이 아닌 것이다. (2)의 「切り出す」에는 전향과 후향만으로 유추가 가능한 ‘잘라 내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유추가 불가능한 ‘말을 꺼내다’라는 의미도 있다. 이와 같이 동사와 동사와의 결합만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복합동사가 존재한다. 특히 「見合わせる」는 이해하기 어려운 복합동사 중의 하나이다.

(3) この度、残念ながら論文の掲載は見合わせることに致しました。

「見合わせる」는 「見る」와 「合う」가 결합된 후 다시 「合う」가 「合わせる」로 변형된 형태이다. 전향과 후향의 원래의 의미로 유추한다면 ‘서로 보다’ ‘서로 보게 하다’가 정도가 된다. 그러나 「見合わせる」에는 ‘마주보다’ 외에 ‘비교하다, 대조하다, 보류하다’ 등의 다양한 의미가 있다. 따라서 완전히 새로운 의미가 되는 경우는 특별히 유의하여 익혀 두어야 한다. (3)은 ‘이번에는 유감스럽지만 논문의 게재는 보류하기로 했습니다.’라는 의미이다. 「残念ながら」가 없었다면 「見合わせる」를 긍정적인 의미로 오해하기 쉽다. 여기서 「見合わせる」는 상대방

을 배려하여 간접적으로 거절하는 표현이다. 「不採用することになりました」라고 하면 의미가 명확하게 전달되지만, 「見合わせる」의 사용은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여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복합동사에서는 화자나 청자의 입장에 대한 배려를 찾아볼 수 있다.

직접적인 표현보다 간접적으로 말하기를 좋아하는 일본인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일본인과 원만한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복합동사의 학습이 꼭 필요하다. 복합동사를 상황에 맞게 제대로 사용하는 일본어학습자라면 일본어가 유창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직 일본어 복합동사를 체계적으로 가르치지 않는 한국의 일본어교육의 현실을 생각하면 복합동사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다.

복합동사는 본동사 단독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심오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문화적 내용까지도 포함하는 경제적인 언어 표현이다. 복합동사는 다양한 의미 용법, 세련된 표현효과, 고도의 문법적 특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일본인의 언어와 문화를 이해하는 데도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는 복합동사가 TV·라디오·신문·잡지·광고·소설·스포츠 등에서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일상생활 속에 깊숙이 침투되어 있고 커뮤니케이션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2. 일본어교육과 복합동사

최근 국내외에서는 일본어교육의 관점에서 복합동사를 연구한(何志明²⁾(2010)이 주목받고 있다. 그는 일본어학습자에게 복합동사의 습득은 매우 어려운 항목 중의 하나이므로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국내에도 복합동사에 대한 연구는 여러 편 있으나 복합동사의 학습에 대한 분석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조남성³⁾은 지적하고 있다. 최근 복합동사와 일본어교육의 관련성을 주제로 한 연구가 나온다는 것은 국내외적으로 이를 인정하고 있다는 증거이지만 교육의 성과로 이어지는 구체적으로 연구는 아직 미비하다.

복합동사의 학습이 어렵다고는 하지만 본동사의 기본적인 의미를 잘 이해한다면 의외로 재미있게 학습할 수도 있다. 중국 張威⁴⁾가 일본의 초등학교 국어교과서를 분석한 결과에

2) 何志明(2010)에서는 일본어교육의 관점에서 몇 가지 예를 들면서 동사와 동사와의 결합을 논하고 있다.
 3) 조남성(2009:449)은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와 일본어 모어화자가 작문에서 사용한 복합동사의 비교」『동북아 문화연구20』에서 일본어교육에 복합동사를 활용하는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4) 張威(2009:42)는 「小学校国語教科書に対する複合動詞の実態調査とその分析—第二言語学習ストラテ

따르면 학년이 높아질수록 복합동사의 사용빈도가 늘어나며, 이성적·사회적·문학적으로 수준이 높은 과목일수록 내용의 충실을 기하기 위해 복합동사의 사용도 늘어난다고 한다.

복합동사 연구에 관한 연구는 한국보다 중국이 전체적인 연구에서나 세부적인 연구⁵⁾에서나 압도적으로 많다. 복합동사는 중국어학습자에게도 어려운 학습항목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에서도 굳어진 복합동사(繰り返す), 전향동사에만 오는 복합동사(まくしたてる), 후향동사에만 오는 복합동사(見せびらかす), 전향과 후향 양쪽에 오는 복합동사(持ち上げる) 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일본어교육에 응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4) お父さんを殺すように仕向たとか、ありもしないお話をでっち上げるようになったんだわ。

복합동사는 전향동사와 후향동사가 어떻게 결합되어 있는가가 중요하다. (4)의 「でっち上げる」는 ‘꾸며내다, 날조하다’는 의미로 「でちる」와 「あげる」의 결합이다. 전향 「でちる」는 ‘빈죽하다’라는 의미이지만 잘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복합동사로는 굳어진 「でっち上げる」와 같은 것도 존재한다.

동사의 성질에 따라 전향에만 오는 복합동사⁶⁾도 있다. 「ひっくりかえる」의 「ひっくりる」, 「しがみつく」의 「しがむ」, 「まかりでる」의 「まかる」, 「生けとる」의 「いける」, 「こびりつく」의 「こびる」, 「なみたつ」의 「なむ」는 복합동사가 될 때 전향에만 오는 동사이다. 자립하지 못하고 후향동사로만 되는 경우도 있다. 「うちしきる」의 「しきる」, 「言いよどむ」의 「よどむ」, 「いさす」의 「さす」, 「飛び交う」의 「交う」, 「ねそべる」의 「そべる」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しきる」「よどむ」「さす」「かう」「そべる」 등은 전향동사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또 후향동사에만 오더라도 전향동사의 성질에 따라 몇몇 예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こける」는 「笑いこける」「やせこける」「ねむこける」로 사용되기는 하지만 전향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あくむ」도 「せめあくむ」「たずねあくむ」「まちあくむ」처럼 사용된다. 또한 복합동사 형태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 「あわてふためく」의 「ふためく」와 「あり得る」의 「うる」는 전향동사가 정해져 있는 경우이다. 자주 사용되는 「おおせる」는 단독으로는 쓰이지 않고 「育ておおせる」처럼

ジーの改善を目指して」에서 복합동사 82어를 분석했다.

- 5) 중국에서는 복합동사에 관한 심포지엄을 할 정도이다. 中國清華大學(2008)에서는 아시아학자들과 중국 학자들을 초청해 일본어복합동사에 관한 국제심포지엄과 학술대회를 개최한 적이 있다. 일본어 복합동사에 관한 한국인 연구자는 5명 이내이지만 중국인 연구자는 발표자만 20명 이상이였다.
- 6) 石井正彦(2007;127)에서는 자립하지 않는 요소로 「あざみわらう」를 비롯하여 36개, 자립하지 않는 후향동사요소로 「とどめあう」를 비롯한 43개의 예를 들고 있다.

반드시 후향동사로만 사용된다. 「おおせる」와 결합되는 것은 「かく」「なる」「にげる」「まつ」「する」이다. 또 어려운 「いかわる」의 「かわる」는 후향동사라기보다는 ‘~할 수 없다는 의미로 조동사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주의할 것은 「~かわる」의 부정형이 「~かわない」가 아님을 학습자에게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切り出す」와 「走り切る」의 「切る」, 「書きはじめる」와 「なぐり書く」의 「書く」는 전향후향 어디에나 올 수 있다. 「切る」와 「書く」는 전향에 오면 전향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후향에 오면 후향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이다. 「おちつく」「とりこす」「なりたつ」「にあう」「みわける」등은 하나로 굳어진 어휘적 복합동사로 간주할 수 있다.

수많은 복합동사를 일률적으로 규정하거나 바탕화하기는 어렵다. 복합동사중에서도 본동사와 관련성이 없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복합동사를 특성에 따라 분류할 때 어휘적인 것, 통어적인 것, 중간적인 것으로 나누고, 의미적으로 분류할 때 기본적으로 ‘아스펙트’, ‘공간의 이동성’⁸⁾, ‘강조’는 연구자들이 공통적으로 분류하는 기준이므로 이를 바탕으로 일본어교육에 응용·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3. 일본어교육과 일러스트

한국인 일본어학습자가 복합동사를 바르게 이해하고 사용하기는 쉽지 않다. 왜냐하면 복합동사에는 본동사만으로는 유추할 수 없는 다양한 의미와 문법적 특성 및 문화적인 내용까지도 함유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를 역으로 생각하면 복합동사를 알게 되면 표현의 경제성과 언어의 함축성을 동시에 익힐 수 있으며 일본 문화에도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기차나 지하철을 타게 되면 안내 방송에서 「見合わせる」라는 표현을 가끔 듣게 된다. 일본 국내의 방송이라 당연하게 받아들였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 약간 어색하다. 「見合わせる」는 상황에 따라 화자와 청자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주의해서 사용해야 하지만 화자의

7) 石井正彦(2007;128)에서는 복합동사에서 제외해야 할 것을 세 가지로 나누고 있지만 그 기준은 명시하지 않았다. 融合을 完全融合(付き合う、成り立つ)、不完全融合(전향의 의미가 불명확한 落ち合う、似合う、ありつく)、不完全融合(후향의 의미가 불명확한 ありふれる、受け合う、みかける)으로 나눈다.
 8) 최근에는 좀 더 나아가 정도진행을 주체지향과 객체지향으로 나누는 연구자도 있다. 필자의 주체지향은 「生き残る、乗り込む、飛び込む、生まれ変わる、忍びなく」 등이고, 객체지향은 「出し抜く、送り込む、書き込む、取りつける、切り倒す、盗み見る、見合わせる」 등이다. 정도진행의 과정은 시간과 동작상황에 따라 의미용법이 달라진다. 한국어로 번역할 경우 객관적으로 의미 파악이 가능한 것을 중심으로 초보적으로 처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정도진행은 추상적 의미에 가깝기 때문에 불명확하다.

입장에서 말하는 경우가 많다. 오노미치(尾道)역 구내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했다며 다음과 같은 안내방송이 흘러나왔다.

(5) 8時14分頃、山陽本線東尾道駅構内で発生した人身事故のため、福山~糸崎駅間で運転を見合わせています。

‘인명사고가 났기 때문에 후쿠아마에서 이토자키역 구간까지의 운전을 보류하겠다’는 내용이다. 아마 잠시 운행을 중단한다는 의미였을 것이다. 그러나 「見合わせる」⁹⁾이라는 표현 때문에, 승객의 입장에서는 사고를 수습하고 곧 다시 운행을 재개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그 자리에서 기다릴 수도 있는 것이다. (5)의 경우는 철도회사 측에서 말할 수 있는 사항일지는 모르지만 승객입장에서는 의미가 불명확하여 오해할 수도 있다. 사고나 정전으로 전차 등이 실제로 물리적으로 움직일 수 없는 직접적인 표현인 「運休する」표현이 더 적절할 것이다.

(5') 8時14分頃、山陽本線東尾道駅構内で発生した人身事故のため、福山~糸崎駅間で運休していま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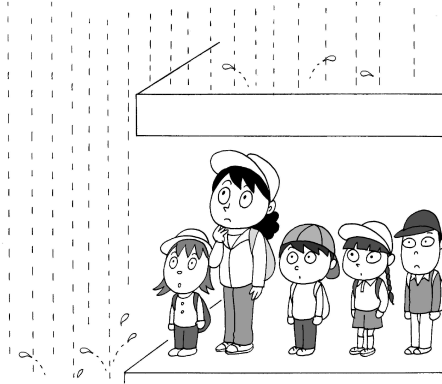
승객의 입장을 생각한다면 (5)의 「運休する」라고 해야 의미가 명확하게 전달된다. 「見合わせる」는 운행을 안 한다는 완곡 표현이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관용화된 표현이다. 아니, 그보다는 화자의 입장과 청자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화자의 입장에서 말한 전형적인 일본어표현일 것이다. 사실 「運転を見合わせる」라는 표현은 ‘운행을 잠시 멈추고 상황을 보면서 시기를 보다’는 의미에 가깝다. 만일에 열차운행에 문제가 있지만 금방 복구해서 운전을 재개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見合わせる」가 적절하다. 넓은 의미에서 보면 「見合わせる」는 편리한 말일지는 모르나 철도회사와 승객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쪽을 중심으로 하느냐에 따라 달리 표현해야 하는 것이다.

이처럼 일본어모어화자인 일본인도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사용자 측과 이용자 측의 입장에 따라 달라지는 복합동사의 쓰임은 한국어로 번역하거나 일본어로 작문할 때는 곤란한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동일한 복합동사라도 문장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원본과 번역본을 실제로 대조해보야 복합동사를 바르게 이해하여 활용하고 있는가를 파악할 수 있다. 다음 삽화의 경우는 「見合わせる」를 사용할 수 있다.

9) 「見合わせる」는 문맥에 따라 ‘마주보다, 대조하다, 보류하다, 결혼시키다’ 같은 다양한 의미로 사용된다. 사독자의 의견중에 (5)와 같은 경우의 「見合わせる」에 대한 의견은 원어민에 따라 달리 생각할 수도 있으니 좀 더 다양하고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6) いきなり雨が降り出しましたのでしばらく雨がやむのを見合わせた。

(6)



(7) 大地震が起きたのでピクニックを中止し、みんな家に帰ってしまった。

(6)의 삽화는 피크닉을 가려고 나갔는데 갑자기 비가 와서 잠시 비를 피하면서 비가 그치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즉 일시적으로 상황을 살펴보는 경우이기 때문에 「見合わせる」라는 표현이 적절하다. 그러나 만일에 (7)처럼 지진이 일어나 피크닉을 갈 수 없을 상황이 된 경우라면 「見合わせる」보다는 「中止した」「中止し家に帰ってしまった」가 바람직하다. 후향동사 「合わせる」에는 인간주체의 행위가 함유되어 있다. 「待ち合わせる」「居合わせる」「乗り合わせる」 같은 낱말이 있는 것을 봐도 「合わせる」에는 ‘가끔’ 또는 ‘우연히’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사물과 사물을 배합하여 하나로 하는 행위로는 「詰め合わせる」「寄り合わせる」「組み合わせる」 등이 있다. 다음에서 복합동사와 일러스트의 몇 가지 예를 들어 살펴보고자 한다.

3.1 「引き上げる」와 일러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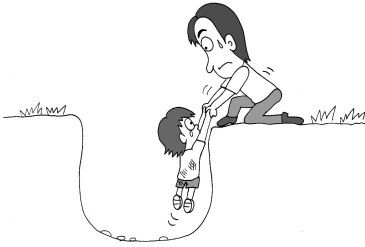
본동사 「引く」에는 ‘끌다, 잡아당기다’, 「上げる」에는 ‘진급시키다’는 의미가 있다. 이처럼 본동사 원래의 의미만으로 복합동사 전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8) 田中さんは穴に落ちていた子供を引き上げていま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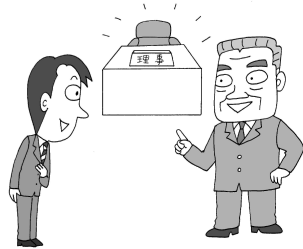
(9) 山田会長は田中一郎を理事に引き上げました。

(10) 9時になったのでパーティーの会場から引き上げまし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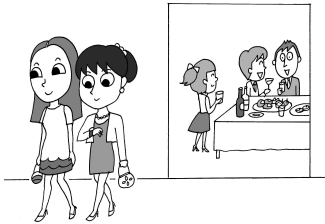
(8)



(9)



(10)



(8)의 「引きあげる」는 본동사의 기본적인 의미에 충실한 경우로 어린아이를 웅덩이에서 ‘끌어 올린다’이다. (8)는 ‘구덩이에 빠진 어린아이를 끌어올리는 그림이다. (9)의 「引きあげる」에도 역시 ‘끌어올린다’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데, 「あげる」에 ‘승진시키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면 ‘다나카를 이사로 승진시키다’라는 뜻임을 쉽사리 짐작할 수 있다. (9)는 ‘다나카를 이사로 (끌어올려) 승진시키다’를 나타낸 삽화이다. (10)에서 「引きあげる」가 ‘연회장에서 빠져나왔다’는 의미가 된 것은 좀 더 표현이 확대되었다고 할 수 있다. (10)의 삽화는 다른 사람들은 아직 파티를 즐기고 있는데 두 사람이 파티장을 빠져나오는 장면이다.

만약에 (9)(10)의 문장에서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지 못했더라도 (9)(10)처럼 일러스트를 활용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3.2 「乗りつける」와 일러스트

「乗りつける」는 「乗る」와 「つける」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복합동사이다. 후행동사「つける」는 타동사이고 이에 대응하는 자동사는 「つく」이다. 「つける」는 ‘A를 B에 붙이다’는 의미로 대상격 「を」 격을 나타낸다. 「むねこバッジをつける」에서 알 수 있듯이 ‘부착’의 의미가 강하게 들어 있다.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부착’이지만 문맥에 따라 습관이나 관습을 나타내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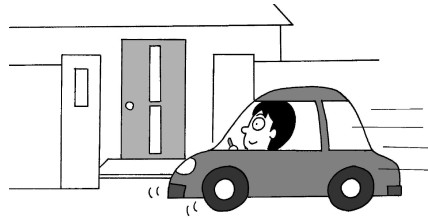
한다.

- (10) 約束時間に遅れてタクシーでホテルまで乗り付けてきた。
- (11) 韓国人ならここまで車を乗り付けるといふこともほぼないと思うけど。
- (12) 山田さんは飛行機に乗り付けているから10時間も大丈夫です。

(10')



(11')



(12')



(10)의 「乗りつける」는 ‘탈것을 이용해 급히 도착하다’는 의미이고 (11)의 「乗りつける」는 ‘차를 탄 채로 목적지까지 가다’는 의미이다. (12)의 「乗りつける」는 ‘타 버릇해서 타는데 익숙하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10)은 ‘약속시간에 늦어서 택시로 호텔까지 급히 도착했다.’ (11)은 ‘한국인이라면 집의 현관 앞에까지 차를 갖다 대는 경우는 거의 없을 테지만 (12)는 ‘야마다 씨는 비행기 타는데 익숙해서 10시간이나 타도 끄떡없습니다.’라고 번역된다. 이처럼 동일한 복합동사라도 문맥에 따라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다. 전향동사인 「乗る」는 똑같이 ‘타다’라는 뜻이지만 후향동사「つける」가 붙음으로서 의미가 달라지는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삽화를 활용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10')는 택시를 이용해 급히 도착하는 모양을, (11')는 차를 탄 채로 집 현관 앞까지 가는 것을 바로 알 수 있다. (12')의 「乗りつける」는 주로 「ている」와 결합되어 ‘습관이 되다’라는 「なれる」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비행기를 타 버릇했기 때문에 10시간이나 걸리는데도 여유

있게 음악을 즐기고 있다. 습관·관습의 의미를 나타내는 「つける」의 「つけ」는 「行きつけの店」「かかりつけの医者」에서 알 수 있듯이 ‘늘 그 일을 해 버릇함(자주 하는(가는) 곳)’을 나타낸다.

3.3 「駆けつける」와 일러스트

「かける」와 「つける」가 결합된 「かけつける」은 방향과 이동을 나타내는 동사이지만 화자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 ‘달려가다’ 또는 ‘달려오다’가 된다. 따라서 (13)(14)는 예문만 보아서는 안으로의 이동인지 밖으로의 이동인지 구별하기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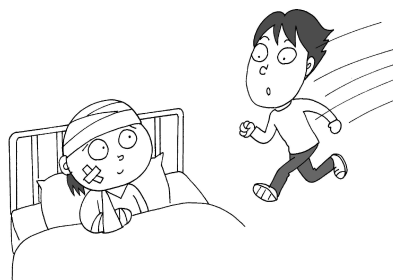
(13) 病院に駆けつけた。병원으로 달려갔다(달려왔다).

(14) 急を聞いて駆けつけた。급보를 듣고 달려왔다(달려갔다).

(13)



(14)



「かけつける」가 (13)에서는 ‘달려갔다(달려왔다)’로, (14)에서는 ‘달려왔다(달려갔다)’로 되어 있지만 그 구별이 명확하지 않다. 이런 경우에 삽화가 추가된다면 (13)는 ‘병원으로 달려갔다’를 (14)는 ‘급보를 듣고 달려왔다’(환자의 입장)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즉 화자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 ‘달려갔다’ 또는 ‘달려왔다’가 되는 것이다. 외국인 일본어학습자가 알기 쉽도록 「駆けつけて行った」「駆けつけて来た」처럼 표현해주면 좋지만 실제로 일본어 모어화자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는 경향이 강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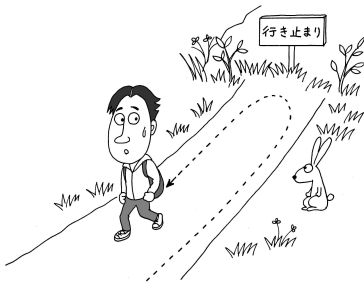
재미있는 것은 「駆ける」와 「つける」의 결합은 자연스러우나 「はしる」「あるく」와 「つける」의 결합은 부자연스럽다는 점이다. 그러나 한국인 일본어학습자는 이를 같은 구조로 보고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かけつける」가 자연스러운 것은 하나로 굳어진 어휘적 복합동사이기 때문이다.

3.4 「引き返す」「引き戻す」와 일러스트

‘되돌아오다(가다)’에 해당하는 「引き返す」는 「引く」와 「返す」가 결합된 복합동사이다.

(15) 行き止まりだったので、来た道を引き返した¹⁰⁾.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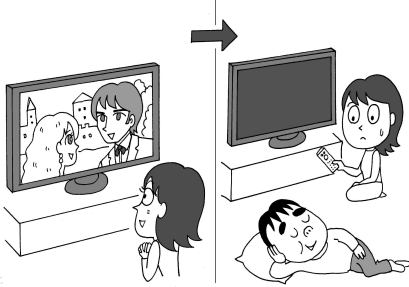
(15)는 ‘막다른 곳이었기 때문에 온 길을 되돌아왔다’라는 의미인데 (15')의 그림을 보면 바로 알 수 있다.

복합동사는 문장의 역할과 양태적인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으므로 외국인 일본어학습자들이 이를 이해하려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일본어에는 복합동사의 수가 너무 많아 학습자들의 이해 정도를 측정하기가 쉽지 않다. (15)와 유사표현인 「引き戻す」는 「もどす¹¹⁾」의 의미를 알면 쉽게 이해가 된다. 즉 「引き戻す」는 「戻す」의 의미가 살아남아 ‘원래의 자리로 되돌리다’가 되는 것이다.

10) (15)의 삽화 예는 「道が間違っていたのに気がついて引き返した」와 같이 다양하게 나타낼 수 있다. 학습자에게 있어서 삽화를 보면서 예문을 작성해 보는 것도 좋은 작문연습이 될 것이다.
 11) 「戻す」의 「取り戻す」는 「返す」와는 달리 마음이나 기분 추상적인 내용에 주로 사용된다. 「おいしいものを食べて元気を取り戻した」「中年だけど恋をして、青春を取り戻した」와 같이 (青春, 健康, 意識)を取り戻す와 같이 사용된다.

(16) 로맨チックな映画を見終わって、現実に引き戻された。

(16)



(16)의 의미는 ‘낭만적인 영화를 다 보고 나서 현실로 되돌아왔다’라는 표현이다. 이를 두 장면으로 나누어 보면 (16)의 삽화처럼 영화가 끝나서(왼쪽) 현실(오른쪽)로 되돌아 온 것이다. (16)는 텔레비전에서 방영되는 낭만적인 멜로드라마를 보며 즐거워했지만 영화가 다 끝나 텔레비전을 끄고 나서 코를 골며 지는 남편을 보며 현실(원래의 자리로)로 되돌아왔음을 깨닫는 상황을 그리고 있다.

유사한 복합동사라도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기도 하므로 복합동사의 속성¹²⁾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하는 것이다.

3.5 「なぐり返す」「買いかぶる」와 일러스트

(17) 兄弟げんかで兄に殴られた弟が、泣きながら殴り返した。

(17)



12) 복합동사의 성질과 구조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엉뚱한 작문이 되어버린다. ‘(차를) 팔아넘기다’를 「売り渡す」, ‘(차를) 사들이다’를 「買い受ける」, ‘아마다 씨가 한 말을 흘려들었다.’를 「山田さんが話したことを聞き流した」라고 작문하려면 복합동사에 대한 상당한 지식과 이해가 있어야 한다.

(17)의 「なぐりかえす」는 ‘때리다’의 「なぐる」와 ‘되갚다’의 「かえす」가 결합된 복합동사이다. 본동사의 뜻을 알면 쉽게 이해가 된다. (17)은 ‘형제싸움에서 형에게 맞은 동생이 울면서 반격했다.’는 내용이다. (17)의 삽화를 자세히 보면 동생이 형에게 먼저 맞아 후이 나 있다. 따라서 동생이 울면서 반격하여 형을 때리기 때문에 「なぐり返す」가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어려운 복합동사라도 전향과 후향을 잘 이해하면 알 수 있다. 복합동사만으로도 그 사람의 과거의 상황과 행동까지도 알 수 있다.

「買いかぶる」는 매우 어려운 표현이다. 전향동사인 「買う」는 ‘사다’, 「かぶる」는 ‘덮어쓰다’라는 의미이다. 산 것을 덮어 썼기 때문에 실제보다 아주 좋은 것이라는 힌트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실제 값어치보다) 비싸게 사다’ 또는 ‘(사실보다) 과대평가하다’라는 의미가 된다.

(18) 新しい大統領の支持率がどんどん下がっている。いい政治をしてくれると、買いかぶっていたようだ。

(18')



(18)의 의미는 ‘새 대통령의 지지율이 점점 내려가고 있다. 정치를 잘 할 것으로 생각하여 과대평가했던 것 같다.’인데 이를 삽화로 표현한 것이 (18)이다. (18')는 말도 잘하고 멋져 보여 정치를 잘 해 줄 것으로 생각했지만 잘 못해 지지율이 점점 내려가고 있는 상황을 잘 나타낸 삽화이다. 따라서 실제보다 과대평가되었던 것을 「買いかぶる」라는 복합동사를 사용해 나타낸 삽화이다.

4. 복합동사의 문법상의 오용

복합동사는 문법상의 오용보다 표현상의 오용이 더 많다. 오용이라기보다는 표현이 부자연스럽다고 할 수 있다. 趙南星¹³⁾에서는 「助け合いましょう」로 해야 할 곳을 한국인 학습자들은 「お互いに助けましょう」로 한국식표현으로 작문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보고가 있다. 복합동사의 번역률의 적중도가 50%가 안된다는 지적이다. 그렇다면 실제로 복합동사를 활용한 번역이 아닌 작문일 때는 훨씬 더 떨어진다는 결론이다.

한국인 학습자들이 한일어가 역전(한일어의 순서가 바뀌어)해 나타나는 복합동사를 그대로 작문해 사용한다. ‘계속 썼다’를 「書き続けた」로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続けて書いた」로 쓰는 경향이 강하다. 일본어교육에서 복합동사를 중요 학습항목으로 넣어 지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한국인 일본어학습자의 번역이나 작문에는 모어의 간섭으로 인해 복합동사가 역전되어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일본어를 잘 하는 학생이라도 ‘바꾸어 타다’를 「乗り換える」로 해야 하는데 「換えて乗る」로 작문하는 학생이 의외로 많다.

한국어의 부사와 동사의 결합을 일본어에서는 복합동사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어는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일본어는 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복합동사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문법상의 오용은 격이나 자타동사의 결합 정도이지만 표현상의 오용은 너무 다양해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렵다. 그러나 표현상의 부자연성은 언어습관과 문화의 차이 때문이기도 하다. 특히 일본어의 복합동사가 한국어에서는 부사와 전향동사의 결합으로 자주 나타난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한국어에서는 부사에 동사를 붙여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를 그대로 일본어에 적용시키게 되면 표현이 부자연스러워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학습자를 중급과 상급 레벨로 나누고, 사용빈도수와 난이도를 조절하여 복합동사를 선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복합동사를 일본어교육에 응용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더 많은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13) 趙南星(2006,410) 「複合動詞の翻訳の類型についての分析と評価」『동북아 문화연구11』동북아시아 문화학회

5. 마무리

복합동사는 의미가 단순한 것과 복잡한 것, 어휘적으로 굳어진 것과 통어적으로 이루어진 것 등 매우 다양하다. 따라서 일본어교육에서는 동일한 복합동사 속에 숨겨진 의미의 차이, 유사 복합동사 속에 내재된 특징을 구별해서 지도하는 것이 새로운 이슈가 되고 있다. 특별한 언어 감각을 가졌거나, 오랜 기간 일본에 체류했거나, 책을 많이 읽어 복합동사를 완전히 이해하지 않는 한 이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학습자는 소수일 수밖에 없다. 복합동사의 활용도와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복합동사의 중요성에 대한 교수자와 학습자의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다. 따라서 경어나 수동형처럼 하나의 문법항목에 넣어 체계적으로 지도해야 한다.

일본어학습자에게 복합동사는 결코 쉬운 과제가 아니다. 복합동사에는 본동사만으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심오한 의미와 문화적 내용까지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복합동사는 다양한 의미, 세련된 표현, 고도의 문법적 특성을 나타내며 일본인의 언어와 문화를 이해하는 데에도 아주 중요한 요소이다. 매스컴이나 광고, 문학작품, 스포츠 등에서 복합동사를 빈번하게 사용하다보니 일상생활 속에 깊숙이 침투되어 커뮤니케이션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見合わせる」에는 ‘보류하다’에 해당하는 표현이지만 화자와 청자 사이의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乗りつける」는 「つける」의 쓰임에 따라 다양한 의미용법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또한 「駆けつける」는 안쪽으로의 이동인지 바깥쪽으로의 이동인지 불명확하기 때문에 삽화의 동작과 상황을 이해하기 위한 주요한 근거가 되었다. 유사표현인 「引き返す」와 「引き戻す」의 구별은 후행동사의 「かえす」와 「もどす」의 기본적인 의미만 구별하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외 「殴り返す」와 「買いかぶる」도 각각의 원의만을 충실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구별이 가능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복합동사의 의미를 정확하고 쉽게 가르치고 배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일러스트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첫 단계로 활용해 보았다.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위해서는 중상급자의 니즈에 맞도록 더 깊이 연구해야 할 것이다. 그 일환으로 앙케트조사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구체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일러스트를 일본어교육에 활용하는 방안은 몇 가지 문제점이 있기는 하지만 각각의 복합동사에 맞는 일러스트를 제작하여 이용한다면 새로운 교수법으로 자리매김할 수도 있을 것이다.

【參考文獻】

- 影山太郎(他)(1989) 「モジュール文法の語形成論」『日本語學の新展開』くろしお出版, pp.139-166
- 石井正彦(2007) 『現代日本語の複合動詞の形成論』ひつじ書房, p.128
- 生越直樹(1983) 「日本語複合動詞後項と朝鮮語副詞・副詞句語句との關係」『日本語教育』54号日本語教育學會, pp.55-64
- 塚本秀樹(1992) 「日朝対照研究と日本語教育」『日本語教育72』日本語教育学会, pp.68-79
- 姫野昌子(1999) 『複合動詞の構造と意味用法』ひつじ書房, pp.143-170
- 森山卓郎(1988) 『動詞述語文の研究』明治書院, pp.45-54
- 仁田義雄(1980) 『語彙論的統語論』明治書院, pp.45-77
- Yoshiko Tagashira・Jean Hoff(1986) 『日本語複合動詞ハンドブック』北星堂書店, p.260
- 山本清隆(1984) 「複合動詞の格支配」『都大論究』21, pp.32-49
- 何志明(2010 a) 『現代日本語における複合動詞の組み合わせ-日本語教育の観点から』笠間書院, pp.7-8
- 何志明(2010 b) 「学習しやすい日本語複合動詞とは何か」『日本語日本語教育研究』コマ出版, p.228
- 張 威(2009) 「小学校国語教科書に対する複合動詞の実態調査とその分析」『北研学刊』広島大学北京研究中心, p.42
- 宋殷美(2008) 「移動動詞との結合による複合動詞の意味擴張」『일어일문학연구64』한국어일문학회, pp.111-113
- 이경수(2012) 『한어대조연구-일본어 복합동사의 어형성과 의미』에피스테메, pp.218-225
- 양호성(2011) 「복합동사와 일한번역」『한국일본근대학회24회 학술대회 요지집』한국일본근대학회
- 趙南星(2006) 「複合動詞の翻訳の類型についての分析と評価」『동북아문화연구11』동북아시아문화학회, p.410
- 조남성(2009)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와 일본어 모어화자가 작문에서 사용한 복합동사의 비교」『동북아 문화연구20』동북아시아문화학회, p.449

논문투고일 : 2012년 09월 10일
심사게시일 : 2012년 09월 20일
1차 수정일 : 2012년 10월 10일
2차 수정일 : 2012년 10월 20일
게재확정일 : 2012년 10월 25일

< 要 旨 >

일러스트를 활용한 일본어교육
-복합동사를 중심으로-

복합동사는 본동사 단독으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심오한 의미와 문화적 내용 및 고도의 문법적 특성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일본어학습자로서는 매우 어려운 분야이다. 그러나 마스크, 광고, 문학작품, 스포츠 등에서 복합동사가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으므로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는 복합동사의 학습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경어나 수동형처럼 복합동사도 별도의 문법항목에 넣어서 지도할 필요가 있다.

일러스트를 일본어교육에 활용하는 방안은 아직 기초단계이지만, 복합동사에 일러스트를 활용하면 그 의미가 시각적으로 바로 와 닿는다는 이점이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복합동사의 학습에 일러스트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해보았다. 복합동사의 의미적 특징을 살린 일러스트를 제작하여 일본어교육에 활용한다면 새로운 교수법의 일환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The Illustration Application of the Compound Verb
in the Japanese Language education**

The compound verb has profound meanings and particular grammatical characteristics in Japanese language. It is challenging for the foreign Japanese second language learners to understand the appropriate meanings of compound verbs in the context. Compound verbs are frequently used in many Japanese learning materials such as mass media, advertisement, literature, and sports. Therefore, it is necessary for the Japanese as a foreign language learners to acquire how to use compound verbs for the communication. Teachers of Japanese language need to consider how to teach compound verbs effectively, since these verbs are required to be in a separate category of grammar, direction for the polite and grammatical voice.

This study is to suggest methods of applying illustration for teaching Japanese compound verbs. Japanese language education enables to take advantage of illustration as an efficient visual tool for teaching and learning compound verbs, although the use of illustration is still in the beginning stage.